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하게 소비자는 	
보도		2023.12.20.(수) 석간		배포	2023.12.19.(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책임자	팀 장	박수홍	(02-3145-7471)
		담당자	선 임	김종현	(02-3145-7472)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책임자	실 장	강승수	(031-644-1629)
		담당자	팀 장	반지운	(031-644-1623)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책임자	부서장	김영산	(02-3702-8590)
		담당자	팀 장	김형일	(02-3702-8591)
성능·품질이 우수하나 가격은 저렴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에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

- **(개선배경)**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통상 OEM비 35%↓)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및 불편한 구매환경 등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 〉

- ① **(소비자 인식 제고)** 품질인증부품의 성능·품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는 보험사(보상직원)·정비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
- ②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 구축)** 품질인증부품을 실제 수리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재고 확인 및 구매시스템 구축
- ③ **(부품사용 통계 제공)** 부품업체가 수요예측을 통해 자주 사용되는 품질인증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를 미리 생산할 수 있도록 보험사고 부품사용 통계 제공

I. 추진 배경

- 품질인증부품은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등하나 가격은 저렴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 품질인증부품은 OEM부품 대비 약 35% 저렴하며 성능·품질은 동등(한국교통안전공단, '23.3.8)

- 국내에서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용어설명

- **(OEM부품)** 자동차제작사(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가 제조한 부품
- **(품질인증부품)**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그간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 품질인증부품 관련 제도개선 내용 〉

구분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별약관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표준약관)
도입시기	'18.2월	'23.1월
주요내용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시 OEM부품 비용의 25%를 환급	경미손상(금힘·찍힘)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적용담보	자기차량손해(쌍방과실 제외)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부품범위	외장부품, 등화부품 등	8개 외장부품 (범퍼, 후드, 펜더(앞, 뒤), 도어(앞·뒤·후면), 트렁크리드)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인증부품 대상 모델·품목 제한, 재고 부족 및 불편한 구매 환경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 품질인증부품 사용실적('23.11월 기준): (환급특약) 총 20건, 10.2백만원 환급 (경미손상 수리) 총 42건

- ※ '23년 국정감사시 국회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금융감독원에 요구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정비업체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품질인증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I. 활성화 방안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생산 증대를 위한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비자 인식	• 품질인증부품을 모르거나 非순정부품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오인	• 소비자 안내강화 및 홍보포스터·동영상 배포 • 보험사·정비업체 대상 교육 실시
구매 환경	• 인증부품 존재여부를 수기확인해야 하고, 재고 확인 및 구매 수단이 제한적	• 인증부품 목록 자동 제공 • 실시간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 구축
공급 환경	• 중소부품업체는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량의 재고 확보 곤란	• 차량수리시 사용된 부품에 대한 통계 제공

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인식 제고

□ (현황) 소비자는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모르거나 단순히 非순정부품으로 안정성이 낮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안내·권유하여야 하는 보험사 및 정비업체도 관련 제도나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 예) 경미손상(금힘·찍힘)시에는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원칙임에도 정비업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OEM부품으로 교환 또는 복원수리 진행

□ (개선방안)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성능·품질 및 관련 제도 등을 보험가입 또는 사고 발생시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홍보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 보험사(보상직원) 및 정비업체가 품질인증부품 관련 제도를 바르게 숙지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품질인증부품 정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관련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 소비자 안내사항 등 포함

나 품질인증부품 실시간 재고확인 및 구매 시스템 구축

□ (현황) 정비업체는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 수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리 부품이 인증부품 대상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 실시간 재고 확인 및 구매가 쉽지 않아* 정비업체가 실제 수리시에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OEM부품은 부품대리점이 전국에 있어 재고 확인 및 구매가 용이하나, 품질인증부품은 취급 유통업체가 적어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재고 확인 후 해당 업체에 주문해야 하므로 불편

□ (개선방안) 품질인증부품이 실제 자동차 수리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 정비업체가 수리 견적 작성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알려주고(팝업) 실시간 재고 현황 및 주문 기능까지 제공하는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계산 및 보험금청구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비 온라인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에 해당 기능을 탑재

- 소비자가 편리하게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 가격 및 판매처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금융 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등재합니다.

※ 국토부가 운영하는 카파몰(kapamall.co.kr)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의 검색·구매가 가능

〈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 (화면 예시) 〉

사용가능한 부품목록 '팝업'

[AOS] 품질인증부품 사용 알림안내

사용 가능한 품질인증부품을 알려드립니다.
부품 업체명:

작업내용	수량	부품액
커버 - 프론트 범퍼	1.00	128,000
판넬 어셈블리 - 후드	1.00	358,200
행포 어셈블리 - DAY RUNNING LIGHT작동	1.00	98,700
브러켓-프론트 범퍼 서라운드, 좌측	1.00	1,600
레지 어셈블리 - 후드	1.00	16,900

품질인증부품 선택 바로가기 닫기

실시간 재고 확인

품질인증부품 선택

부품 1 커버 - 프론트 범퍼

품질인증부품

재제조품

품질인증부품 선택 완료 닫기

다 품질인증부품 공급 확대를 위한 부품 사용 통계 제공

- **(현황)**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요 예측이 어려워 부품업체가 적정 재고를 보유하기 곤란하고,
 - 정비업체와 소비자는 원하는 시기에 재고가 없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부품업체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재고를 미리 확보하고 인증부품 품목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 매년 직전 1년간 보험사고로 인한 차량수리시 사용한 부품통계(다빈도 사고 차종, 부품 등)를 부품업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자동차기술연구소 → 연구자료) 및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통해 제공 예정

〈 부품 사용 통계(예시) 〉

다빈도 사고차량 통계 (국산차)				
기준 : '22년도				
순위	제조사	차량명	연식	사고건수
1	현대	HG그랜저	2010	137,978
2	현대	그랜저(G20)	2019	87,220
3	현대	그랜저(G17)	2016	84,424
4	현대	올뉴투싼(T5)	2015	74,082
5	현대	싼타페DM	2012	63,648
6	현대	아반떼AD(16)	2015	52,836
7	현대	TG그랜저	2005	50,176
8	현대	아반떼HD(06)	2006	44,820
9	현대	YF쏘나타	2009	41,479
10	현대	올 뉴 모닝(11)	2011	40,227
11	현대	올뉴카니발(14)	2014	40,021
12	현대	싼타페TM(18)	2018	38,911
13	현대	LF쏘나타	2014	38,623
14	현대	아반떼(20)-CN7	2020	37,353
15	현대	올 뉴 K7	2016	36,259
16	현대	쏘나타(19)	2019	34,836
17	현대	티볼리	2015	34,242
18	현대	아반떼MD(10)	2010	33,974
19	현대	올뉴모닝(17)	2016	33,257
20	현대	포티프(슈퍼캡)(17)	2016	32,395
21	현대	터렉스트스파크	2015	31,899
22	현대	아반떼MD(13)	2013	30,883
23	현대	LF쏘나타 뉴라이즈	2017	30,558
24	현대	K5	2010	28,952
25	현대	스파크(마티즈크리에이티브)	2009	28,827
26	현대	KS19)-DL3	2019	28,413
27	현대	올뉴쏘란토	2014	28,165
28	현대	스포티지(16)	2015	26,600
29	현대	팔리세이드(19)	2018	26,068
30	현대	스포티지R	2010	24,467

다빈도 교체 부품 통계 (모달, 부품종류)				
기준 : '22년도				
순위	제조사	차량명	연식	교체건수
1	현대	HG그랜저 프론트범퍼	2010	32,057
2	현대	아반떼AD(16) 프론트범퍼	2015	27,385
3	현대	포티프(슈퍼캡)(17) 프론트범퍼	2016	20,661
4	현대	올 뉴 모닝(11) 프론트범퍼	2011	19,595
5	현대	YF쏘나타 프론트범퍼	2009	18,145
6	현대	그랜저(G17) 프론트범퍼	2016	17,223
7	현대	HG그랜저 리어범퍼	2010	16,737
8	현대	아반떼MD(10) 프론트범퍼	2010	16,638
9	현대	올뉴모닝(17) 프론트범퍼	2016	16,553
10	현대	아반떼(20)-CN7 프론트범퍼	2020	16,477
11	현대	올뉴카니발(14) 프론트범퍼	2014	16,378
12	현대	LF쏘나타 프론트범퍼	2014	15,502
13	현대	아반떼MD(13) 프론트범퍼	2013	15,192
14	현대	아반떼AD(16) 리어범퍼	2015	15,162
15	현대	K5 프론트범퍼	2010	15,016
16	현대	싼타페DM 프론트범퍼	2012	14,892
17	현대	포티프(슈퍼캡) 프론트범퍼	2003	14,831
18	현대	올뉴투싼(T5) 프론트범퍼	2015	14,611
19	현대	올 뉴 K7 프론트범퍼	2016	14,291
20	현대	싼타페TM(18) 프론트범퍼	2018	14,218
21	현대	터렉스트스파크	2015	13,747
22	현대	쏘나타(19) 프론트범퍼	2019	13,725
23	현대	그랜저(G20) 프론트범퍼	2019	13,497
24	현대	아반떼AD(16) 라디에이터그릴	2015	12,993
25	현대	그랜저(G20) 리어범퍼	2019	12,810
26	현대	LF쏘나타 리어범퍼	2014	12,145
27	현대	아반떼AD(16) 헤드램프(좌)	2015	11,820
28	현대	올뉴쏘란토 프론트범퍼	2014	11,819
29	현대	티볼리 프론트범퍼	2015	11,745
30	현대	HG그랜저 헤드램프(좌)	2010	11,732

III. 기대효과

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환경 조성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고 수요에 맞춰 적정한 재고관리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 품질인증부품의 수요 증대와 함께 공급도 증가하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수리비 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

- OEM부품의 대체재인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수록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차량수리비 절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V. 시행시기

세부 과제	추진일정(안)
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① 보험사·정비업체 대상 교육자료 배포 및 보험사별 교육	'23.12월
② 소비자 안내 강화 및 홍보포스터·동영상 배포	'24.1분기
나.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 구축	
다. 차량수리시 사용된 부품에 대한 통계 제공(연 1회)	
* '23.12월 중 부품사용통계('22년) 시범 산출 및 제공 예정	
	'24.상반기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8 -

◆ 국토부는 '14.1월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품질인증부품제도'를 도입

- 이후 국토부는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자의 품질인증부품 고지 의무화('17.1월),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부품협회와 MOU체결('17.9월) 등 제도 보완

* 국내 자동차제조사는 품질인증부품에 대해 국산차 외장부품의 디자인보호법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

- (인증대상)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범퍼, 펜더 등 외장·소모성 부품 위주

인증대상 품목 예시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능·소모성 부품	
					
펜더	범퍼	주간주행등	제동등	라디에이터	쇼버

- (인증현황) '15.7월 최초 품질인증부품 인증 이후 '23.11월 기준 1,937개 부품이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부품 공급시장은 성장하는 추세

품질인증부품 인증 현황('23.11월)

(단위 : 개)

인증건수		외장	등화	기능·소모성	계
국내 부품업체	국산차	332	2	168	505
	외산차	3	-		
해외 부품업체	국산차	-	-	3	1,432
	외산차	847	582		
계		1,182	584	171	1,937

- (인증절차)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부품협회(인증기관)가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성능·품질 기준 만족시 인증

*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시험실 시험(자동차기술연구소 등) → 최종인증